

자연적인 악조건을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킨 일본 3대 와인산지 ‘이케다정(池田町)’



장성화

jangun@jd.re.kr

토카치(十勝)와인의 탄생은 이케다정의 혹한기를 극복하고 재배가 적합한 포도 품종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과로 출하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40여종에 달하는 묘목을 도입해 재배를 시도했으며, ‘와인’은 생과로 판매하기 위한 품종 개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작은 시골마을 이케다정



2011

(池田町)	(海道)
8	
	25 가
	.
	‘
(十勝)	3
	가
	60



와인의 고장 이케다정의 발전 과정 (十勝)

가

40

가

1),

가

1962

가

가

가

가

1950

1960

5



1964

가

1967

1

가

1964

1)

30

3

가

. 1975

가

가

. 1988

(飯酒)
(町)

(田園)

1972

20

3 가

가



가

, 가

1974

1

가

(城)



가

가
가



(城)

가

이케다정 사례가 주는 교훈
가

가

2000

가 가

가

가

가



1960